



“생산과 판매가 연계된 물류혁신 프로그램 구축이 인상적”



류 재 영
한국물류대상 심사위원장
국토연구원 교통연구실장

올해로 제14회를 맞은 2006 한국물류대상은 물류부문에서 최고의 권위와 역사를 자랑하는 유일한 정부포상으로서, ‘2020 글로벌 물류강국 실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정책에 부응하여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그 위상을 더욱 강화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특히 올해는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물류업 활성화 시책과 관련하여 본 대상에서도 각 기업 및 기관의 물류경쟁력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세부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국내외 관련 물류부문간 균형있는 협력체계의 구축 필요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분야를 심사후보군에 포함하였다. 금년에 새로이 포함된 분야로는 교육분야, 해외물류 지원, 업종간 협력, 국제물류 교류, 지자체의 물류업무 등이다.

그동안의 경과를 보면, 2006년 4월에 후보자 공모를 거쳐 6월 30일까지 기업체, 기관 그리고 개인에 대한 서류 접수를 받는 동안에 물류대상 집행위원회가 추천한 물류관련 정부, 대학, 관련단체, 연구기관의 물류전문가로 구성된 8인의 심사위원들이 3개월간 기존의 심사기준을 보완하고 정비하는 과정을 거쳤다.

심사기준은 보다 정확한 측정과 후보자 간의 객관적인 비교가 가능하며, 향후 기업의 물류경쟁력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의견 수렴과정을 통해 세분화·구체화하였다.

심사기준은 크게, 최고경영자의 리더쉽과 물류경영전략, 물류혁신 및 개선활동, 물류혁신 및 개선활동에 대한 효과, 기타 물류산업발전을 위한 기여활동으로 구성하였으며, 전반적 물류전략과 비전, 구체적인 물류전략 및 활동, 성과 및 측정에 중점을 두었으며, 각 후보기업에서 운영 중인 물류합리화 프로그램의 점검, 개선기회의 발견을 지원하는 역할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최고경영자의 리더쉽과 물류경영전략의 평가를 위해서 비전, 전문성, 장기전략, 조직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물류혁신 및 개선활동 영역은 정보화, 표준화, 공동화, 자동화, 전문화의 5개 부문을 포함하고 있으며, 물류정보 인프라 구축, 거래 및 장비의 표준화, 물류비 관리시스템 외에도, 공급망 관리(SCM), 제3자 물류(3PL)서비스 등 선진 물류기법을 적용하여 세부적인 경쟁력 평가기준이 보완되었다.

1차 심사는 제출된 서류와 첨부자료를 평가하는 서류심사로 실시하였고, 2차 심사에서는 신청 업체 및 기관의 물류현장을 심사위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물류혁신 사례에 대한 현장심사를 실시하였다. 현장심사에서는 심사위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업체의 설명회를 가진 후 제출된 자료와 실제 물류활동수준을 점검하여 보다 공정



하고 엄격한 심사를 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 심사항목 중 누락된 부분은 보완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었으며, 필요시 성과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3차 심사는 2차 심사를 마친 후에 심사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개인별로 심사한 점수를 토대로 각자의 심사평과 각 후보자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심사위원 합의로 심사결과를 결정하였다.

심사결과를 요약하면, 신청업체들의 수준이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향상되었으며, 효율적인 물류시스템을 경쟁적 우위의 중요한 요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많은 기업들의 노력을 볼 수 있었다.

신청한 기업과 기관들이 나름대로 각 분야에서 물류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었으며, 상위수상 기업 및 기관과 나머지 기업 및 기관 간의 차이는, 얼마나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물류체계를 확립하고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해 적절한 전략을 도입·운영하였는가에 따라 차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많은 기업과 기관들이 첨단 물류 프로세스와 시설들을 확보 및 운영하고 있다는 점과 생산-영업부문과 연계되는 물류혁신 프로그램의 운영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ABC재고관리, 총공급망원가관리(SCC), 전자조달(VMI), 협업화(CPFR), 균형성과표(BSC), 무선자동인식(RFID) 적용 등 첨단의 물류 프로세스들을 본격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기업 및 기관들이 다수 있었으며 앞으로 이들이 우리나라 물류산업의 발전을 선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쉬운 점은 그 격차가 많이 좁혀졌다고는 하나 아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준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특정 부문에서는 강점을 가지고 있으나 각 부문 간의 연계 및 체계화된 통합물류시스템의 구축이 미흡한 편이다.

대기업에 있어서도 기업 내의 통합물류관리는 국제 수준의 상당한 궤도에 올라 있는 경우도 있었으나, 공급망관리(SCM)은 아직 도입기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 기업들이 많았다. SCM의 틀을 구축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도 협력업체들과 쌍방향의 정보 공유 및 이를 위한 신뢰의 확보 등이 부족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한국물류대상 심사를 통해, 물류분야의 기업 및 기관의 많은 노력 및 그 성과를 확인 할 수 있었으며, SCM, 공급업체관리, 정보공유, 협업화, 물류비 회계시스템, 제3자 물류활성화, 고객 만족 평가관리, 균형성과표 활용, 고급 물류인재 양성, 성과관리, 홍보 등은 향후 지속적이고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국물류대상 심사위원장
국토연구원 교통연구실장 류 재 영



▼2006 한국물류대상 심사과정